

**프란치스코인의 삶**  
**우리는 왜 신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까.**  
**작성자: 프렌신 기코우 OFS**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로마서 12:2)\*"

성 바오로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세 가지 수준, 즉 선, 허용 가능한 것, 완전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적으로 선한(악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최소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순응을 반영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헌신을 보류하는 수용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에 의해 변화되기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완전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재속회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높은 수준, 즉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원 예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 종들이 세상 속에서 더욱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교회가 재건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완전한 그리스도인 사랑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의식, 23-24)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자체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급진적인 내적 변화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에 일치"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규칙, 7)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완전함을 향한 소명의 여정에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심을 시작하시고 우리는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부르시며 와서 보라고, 그리고 기도로 그분과 함께 잠시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여 기도 안에 거하며 깊고 친밀한 관계로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광야에 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 '사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서두르거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제나 소망에 얽매이지 않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방법이나 특정한 기도 스타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26-27)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쇠신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예수님께 매료되었고, 그분과 함께 머물며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으며,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자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의 불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먼저 듣고 분별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가르침이 아닌 은혜를, 이해가 아닌 소망을, 부지런한 독서가 아닌 기도의 탄식을 구하십시오... 빛이 아니라 황홀한 결합과 불타는 애정으로 우리를 완전히 불태우고 하느님 안으로 데려다주는 불을 구하십시오. 이 불은 하느님입니다. (성 보나벤투라,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여정. 7:6)